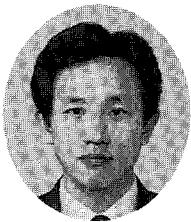


쓰레기 처리기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자



申鉉國 (환경처 기술개발과장)

요즈음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캠페인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언론기관, 소비자단체, 국민 모두가 앞장서고 있다. 식당의 나무젓가락이 점차 사라지고 1회용품 제조업체들이 도산하는가 하면, 그동안 1회용품에 밀려 찬밥신세를 당하던 업체들이 활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선진국(?)이라고 할까, 1인당 발생량이 2kg을 넘었고, 나라 전체로는 하루에 9만여톤이 발생되고 있으니 엄청난 량이다. 미적지근한 것을 싫어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근성이 쓰레기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나 할까, 항상 푸짐하게 차려야 차린것으로 여기고, 포장도 여러겹 정성스럽게 하여야 예의를 갖추고, 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근에는 편리함 때문에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1회용품들, 이들이 우리의 쓰레기발생량을 높인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청소차로 수집하여 대부분 매립장으로 보내어지고 매립장으로 보내어진 쓰레기는 덮개 흙과 함께 매립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매립지가 몇년 사용하면 바

닥이 나게 되었고, 추가 매립지 확보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어려운 현실이고 보면 정말로 큰 문제이다. 소각할 처리시설도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쓰레기문제는 단순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 산업과도 직결되는 주요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번 김포주민의 반대로 수도권 일부 사업장의 조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음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사실이다.

쓰레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어쩌면 우리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다고나 할까

가끔, 조상들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할 때가 많음은 쓰레기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전성기때 경주의 총가구수가 18만호, 4인가족으로 잡아도 70만 인구로 추정되며, 이 당시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려, 조선시대에도 쓰레기처리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쓰레기의 위생적처리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고 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은 쓰레

기를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쓰레기처리에 대한 특별한 기술도 없었을 것이며, 운반장비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없다.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는 한양 4대문안의 거리와 개천의 풍경이 소개되고 있고,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는 안되는 문제며, 쓰레기를 모아서 썩혀 퇴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상들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하였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오늘날보다 적게 먹고, 소비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가까운 주변농토에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을 것이며, 이래, 저래 해결안된 쓰레기는 빈공터에 버렸을 것이다. 선조들의 이런 쓰레기문화를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 적게 소비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앞장서고, 발생된 쓰레기는 가능한한 재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최종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백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이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캠페인

등 주요대책들이 결국 조상들의 쓰레기 재활용 지혜를 본보자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쓰레기란 결국 따지고보면 자원의 낭비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어에서 쓰레기로 표현되는 『Waste』란 어휘도 낭비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쓰레기에서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성분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약 27%)이며,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나라 전체로는 연간 무려 8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쓰레기 재활용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10%를 줄이면 나라 전체로는 하루에 9,000톤의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처리비용만도 하루에 약 1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자원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국토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버리는 쓰레기가 돈이요, 자원이라는 사실을 다 함께 인식하면서 조상들의 슬기로운 쓰레기 재활용 지혜가 21세기를 향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진다. ◀

조상들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몇가지 가능하였던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첫째, 오늘날보다 적게 먹고, 소비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가까운 주변농토에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을 것이며, 이래, 저래 해결안된 쓰레기는 빈공터에 버렸을 것이다.

